

오히려 새로 시작해야 할 詩의 잔치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베스트셀러화현상을 보는 몇가지 관점

한원균

문학평론가

현대사회를 후기 산업사회라고 생각하면서 달라진 삶의 환경과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는 이론이 우리 문학계를 풍미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이나 생활세계의 양상들이 이전의 80년대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와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중심이 현실세계의 주요모순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내면적 삶의 수많은 결들에 대한 관심과 복원이야말로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 과정을 통해 수직적 질서의 계열관계가 빛의 억압구조를 수평적인 힘들의 분산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양상인데, 「문화(학)의 테마는 역사의식 안에서 모든 인간이 매번 직면하는 실존의 문제」(다니엘 벨)를 제기한다. 요즘 많이 팔리는 시집 가운데 하나인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창작과비평사)는 한 성숙한 인간이 견뎌야 했던 통과제의적 고통에 대한 성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언어가 갖는 힘은 자신의 욕망을 비추는 투명함에 있다. 욕망하는 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의 기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욕망의 근원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한다.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을 자기 것으로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자신을 욕망하는 것이다. 최영미의 수사학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욕망하는 주체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서 빚어지는 '수렁'의 깊이이다. 기다림이란 아주 짧은 순간 부채에서 죽음으로 기울어지는 심연일 수 있다. "자아는 상처받을 때 말을 한다."(롤랑 바르트) 상처받은 언어의 황폐함이란, 그 속에서 꿈꾸는 일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 봄비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혼자 있음을 자각하는 것, 새벽 1시 이후 종종 "관록있는 구두"의 여로를 따라 도시의 심연을 산책하는 일의 고통이 그녀의 언어가 갖는 結晶이다.

일상적 삶의 답답함 무너뜨려

최영미의 글쓰기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보여주는 삶의 부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문화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글쓰기의 형식은 글읽기의

욕망구조와 다르지 않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서정이 갖는

보편적 환기력은 자신의 생을

언어화시키고 싶은 독서대중의

기대감을 일면 충족시켜 주고 있다.

삶의 진실은 윤리적 실천과정에서

구체화된다고 믿었던 시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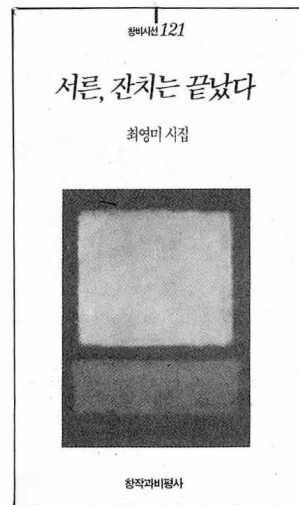
경험한 세대에게, 최영미의 서정은

인식론적 전환에 해당한다.

첫째, 그녀가 보여주는 언어의 투명성이 갖는 보편적 환기력이다. 늘 간헐적이며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은폐하고 거리를 두는 일상적 삶의 답답함을 그녀는 과감하게 벗어버린다. 이는 반항을 꿈꾸는 행위로 돌출되기도 하며 사랑, 배반, 망각이라는 추상명사 속에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자신들의 삶을 대위시킬 수 있게 한다. "그대 내가 사랑했음도 모를 이름이여"라는 진술 속에 얼마나 많은 익명들이 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고통은 고통끼리 정붙여/살맛대고/물어뜯는 밤/치욕은 또다른 치욕으로만 씻"길 수 있다고 삶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이 뜻하지 않던 수렁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대중적 정서의 가벼움으로 다가오고 감각적 비유의 참신성과 섬뜩함이 현실의 질서에 길들여진 많은 일상인의 내면을 충격하는 힘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글쓰기의 형식이란 글읽기의 욕망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서정이 갖는 보편적 환기력은 자신의 생을 언어화시키고 싶은 대중들의 자기표현 욕구에 대한 기대감을 일면 충족시켜 주고 있다. 삶의 진실은 윤리적 실천과정에서 구체화되고, 현실의 거대한 모순에 둔감하다는 것이 공동체의 삶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관념이 개인적 진정성을 훼손했던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에게, 최영미가 보여주는 내면적 생기발달함은 그 자체가 인식론적 전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고통을 엿보는 일이 자신의 삶의 어떤 결락부분을 탁월하게 재생시



키는 데만 국한되어 또 다른 삶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함을 유도한다면, 글쓰기와 읽기의 언어적 소통관계를 단절시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사회, 정치적 거대담론에 의해 많은 개인적 진실이 억압되었으며, 이러한 억압을 복원하는 것이 오늘날 문학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라는 반론도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학적 비판이란 사랑, 성, 쾌락 등을 추구하는 내면적 자유로움이 정치와 지배관계로부터 혹은 권력관계로부터 어떻게 유린, 내지는 유착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곳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의 보편적 욕망의 억압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개인적 욕망의 재생은 문화적 퇴행을 반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욕망의 재생과 문화적 퇴행

셋째, 문학이 하나의 상품으로 자본주의 유통질서 속에 잘 편입되는 현상을 소설 뿐 아니라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적 진정성이 읽히는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와 자본에 의해 문학이 기호화되어 포장을 잘하면 기본 매출액(?)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전략이 이제 우리문학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액의 원고료를 내걸어 신인을 당선시킨 뒤 그 액수를 마스크에 크게 알리면서 작품의 가치가 마치 원고료의 수준과 일치하는 듯한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주고 있는 행태와 일치한다. 소설의 경우 작가의 삶의 경험은 편집자의 주문에 의해 각색되고 정원을 손질하듯 한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최

근에 새롭게 출판되는 장편소설들이 문화적 이탈현상을 주제로 삼으면서 그것이 중요한 사회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심각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그런 소설들은 사회적 이탈현상 자체를 상품화시키는 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잘못된 욕망이 고발되고 사회적으로 여과되는 과정이 욕망의 재생과 무기력증을 '반영' 하는 일이 되고, 혹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담론체계가 한편의 탁월한 욕망장치로 되살아나는 현상은 오히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많이 팔리는 책은 무엇인가 문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편견이라는 점이다. 독자를 우상화시키는 상업출판의 논리에 대해서 과감한 비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전철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일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고, 광고의 홍수 속에 책 선택의 기준을 완전히 내맡겨버린 독자들의 판단력을 문제적인 작품의 준거로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영미가 보여준 언어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의 고통스러움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스러움 속에는 '최영미라는 문화현상'이 빛나는 탈정치적, 탈중심적 문화논리의 음험한 욕망을 보는 힘겨움도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잘 팔리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며, '왜 팔리느냐'에 있고 나아가서는 '왜 읽느냐'에 있다. 포스트모던한 사회라고 하여 모든 문화산업이 그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판단과 토론을 통한 검증과 실천으로 소외된 것들을 복원하며, 이성의 폭력성과 현실세계에 주어진 억압구조를 자유로운 주체들의 유희와 상호 이해가능성을 기반으로 비판할 때, 포스트모던한 이론과 글쓰기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최영미의 글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의 방황과 좌절을 동반한 깊은 허무와 세계에 대한 냉소적 시각은, 젊은날 자신이 견뎌내야 할 제의적 과정의 한 양상으로 그녀 생애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다.